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 구현

1964년 7월 6일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올해로 꼭 45년, 사람으로 치면 원숙해지고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년의 나이이다.

조직 발전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천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45년간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의 첨병이자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고, 이를 부인하는 어느 누구도 없다. 변함없이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 안전한 밝은 사회와 안전한 나라 건국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최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의 지반 붕괴, 크레인 전도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근로자 수만도 2,422명으로 하루에 약 7명에 가깝다. 이는 영국의 13.12배, 일본의 8.84배, 미국의 5.15배로 아직까지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소중한 꿈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의 터전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나아가 밝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의무일 것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5,000여 회원과 700여명의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조기교육을 통한 미래의 안전한 나라 건국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서 배운 지식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한 구절 속에는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어린 초등학생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안전의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KISA 안전그림·포스터 현상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첫 공모전을 시작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한 공모전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들에게 안전그림과 포스터 공모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 인식시키고 있다.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를 맞춰 개최하고 있는 공모전은 제4회까지는 격년으로 실시되다가 2008년 제5회부터는 매년 실시하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일반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면 교통안전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 제5회 2008 KISA 안전그림 포스터 시상식



▶ 안전그림·포스터 공원 전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림이라는 쉬운 소재로 안전을 표현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발생은 곧 가정의 슬픔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매년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응모를 한다. 초·중·고등부 별로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9명, 동상 15명, 가작 12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은 각 지역 및 행사에 전시되고, 전시를 원하는 사업장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범국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 소외 계층 영세 소규모 사업장, 관심을 통한 무재해 달성

매년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사각지역에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8년 산업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자의 78.4%, 사망자는 58.9%가 발생하였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7,096,60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2.61%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재해율은 1.23으로 전체 재해율 0.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산업재해의 온상이라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지방노동청 감독관이 300여명 공단의 지도원이 900여명으로 7백만에 가까운 50인 미만의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이에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위험성평가를 개발·보급해온 4M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50인 미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50인미만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지원

2008년을 처음으로 전국 57개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낮추는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에는 300여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경력 10년 이상의 고급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정, 기계기구현황, 재해현황 등을 분석하고 각 공정에 따른 4M방식의 위험성평가 보고서를 작성,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여부까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교육도 병행하며 추가 위험요인의 발굴 방법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한 조언도 이루어진다.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원 사업은 1차년도 대상 사업장 만족도 조사에서 70.2%가 만족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앞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4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소외 계층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무상 지원을 통해 안전한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별 안전관리

#### Work-Shop 무료 개최

2008년 5월 정부는 3대 다발재해(협착, 전도, 추락)를 줄이기 위해, 8,000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2012년까지 4만개 소 지원, 재해건수 4만여 건에서 2만여 건으로 줄여나가는 3대 다발재해 절반 줄이기 운동을 선포하였다. 이런 정부



▶ 건설업종 Work-Shop 무료 개최



▶ 조선업종 Work-Shop 무료 개최

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업종별 안전관리 Work-Shop을 전국 5개 광역으로 나누어 조선업, 건설업, 제조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업종을 선정, 2009년 3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총 8회가 진행되었다. 2008년 7월 1일,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업종 안전관리 Work-Shop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Work-Shop을 개최했다.

부산에 지역특성상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을 나눠 2회 개최로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의 조선업종 안전보건 정책과 재해감소대책, 조선업종에서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는 지역 업종 관계자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었다. 금년도에는 5개 대도시에서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Work-Shop을 끝낸 상태이고 앞으로 자동차업종,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업종별 Work-Shop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일회성 단발로 끝내는 Work-Shop 아니라 매년 고정 예산을 배정하여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와 함께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관련 학술대회 후원


#### ▶ 인재육성과 안전학계의 발전을 후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전분야 학회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미래의 안전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KISA 장학금 지원과 안전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후원을 통하여 산업안전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 신규채용자 무료 교육 확대 실시

전국 24개 지회를 통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무료로 시행중에 있다. 2008년까지 총 2만 여명의 신규채용자 무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농촌사랑 1촌 1사 안전한 마을 가꾸기 운동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농촌마을과 결연을 통해 인·물적 재산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촌사랑 1촌 1사 안전한 마을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점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위험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특히 간단한 소모성 부품 및 노후된 전선, 배관 등은 직접 교체해 주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농촌사랑 1촌1사 안전한마을 가꾸기 운동



▶ 이웃돕기 선금전달



▶ 태안기름 제거 봉사활동



▶ 안전관계자 해외산업시찰 후원